



科學技術의 振興方案

— 科總과 學會의 役割을 中心으로 —

崔 相 峯

(國會議員·理博)

I 科學技術의 진보는 경제발전의 요체라고 하겠다. 經濟를 先進國水準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는 科學技術의 진흥이 선행되어야 함은 길게 論할 필요가 없다. 科學技術의 진흥이야말로 火急을 요하는 重要課題라고 할 것이다. 科學技術振興의 當爲性은 너무나도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고 있기에 本人은 科學技術이 “어떻게” 진흥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考察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科學技術이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가? 여러 國家의 國民所得 成長率에 대한 技術進步의 寄與度를 비교해 보면 先進國의 경우 30%선을 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겨우 6~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技術水準을 特許등록件數, 技術貿易額, 제조업의 附加價値額, 技術集約的 제품 수출액 등의 합으로 표시하는 경우, 우리 나라의 技術水準이 日本, 英國, 프랑스 등의 1/10선에도 훨씬 미달한 실정임을 알게 된다. 이 技術水準値에 연구개발투자액, 技術輸出額, 國外特許 取得件數 등을 算入하여 기술개발능력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더욱 더 뒤진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과학기술수준을 선진국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自明하다. 科學技術振興方案은 광범위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결론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本人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科學技術系 學會 및 團體(이하 學會라고 略稱함)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각 學會를 會員 團體로 하는 科總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

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II 먼저 각 學會가 가져야 할 기능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學會는 會員의 活動을 적극 支援한다.

學會는 學會誌 및 기타 刊行物의 발간, 學術會議, 討論會 및 기타 會議의 개최, 科學技術情報의 수집과 보급, 國際間 협력 및 교류등을 통하여 會員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은 會員의 個別的인 활동만으로 이룩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學會가 學術研究費의 支給機關은 아니지만 會員의 연구개발활동을 적극 후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政府가 필요로 하는 國策研究課題의 수행에 있어서 會員中에서 適格者를 찾아 이에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學會가 會員들의 人的 事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2) 學會는 産學協同의 橋梁役割을 다한다.

生産技術의 고도화와 더불어 先進技術의 導入時 당해 기술에 대한 충분한 評價能力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技術所在情報를 정확하게 입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導入技術의 소화 개량 및 新技術의 개발에 의한 技術自立能力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技術情報의 정확한 수집과 新技術의 개발 노력 등으로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産業構造의 취약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産學協同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尖端技術의 도입과 개발에 있어서는 더욱 긴밀한 産學協同이 필

요하다. 각學會는 專門分野에서의 產學協同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學會는 專門教育의 向上과 地域社會에 대한 봉사에 노력한다.

學會自體가 教育機關은 아니지만 各級 學校에서의 해당 專門教育의 실시에 관하여 會員의 衆智를 모음으로써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研究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學會는 또한 각 專門領域에서의 市民教育, 成人教育, 現地教育 등의 실시방안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이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學會는 기타 地域社會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살기 좋은 福祉國家建設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III 科學技術의 진흥이란 어느 한 두기관의 힘이나 몇몇 사람의 힘으로 이룩될 수는 없으며 科學技術계의 全力量을 집결시켜야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科總은 科學技術系의 모든 學會를 會員團體로 갖고 있기 때문에 科學技術振興에 대한 科總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1) 科總이 傘下學會를 적극 育成支援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각 學會는 해당 專門分野에서 科學技術振興의 一次的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인바, 각 學會가 그 사명을 다하도록 科總은 會員學會를 적극 育成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산하 學會에 대한 財政支援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방식을 택하며 조속한 時日內에 自立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각 學會의 學會誌發刊費用, 國際機構 會費 및 참가비용, 科學者 해외파견 비용, 國外人士 초빙비용 등 적절한 項目을 정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科總이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科總이 國內學術振興活動을 적극 전개한다.

多學問의인 영역에 속하는 學術活動 또는 각 學會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들은 聯合體인 科總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가) 綜合學術誌의 발간 및 綜合學術會議의 개최
綜合的인 성격을 띤 學術誌나 圖書의 발간이라든가 종합적 성격의 學術會議나 討論會의 개최는 科總이 主管해야 할 것이다.

(나) 科學技術用語의 制定 및 보급

科學技術用語는 分野間에 統一調整될 필요가 있다. 또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새 用語가 탄생한다. 그러므로 科學技術用語의 制定, 用語集의 발간 및 制定된 用語의 보급은 科總이 主導해야 할 業務라고 생각한다.

(3) 科總이 國際協力の 中樞의 기능을 다한다.

科學技術分野의 國際協力 및 교류에 관하여 각 學會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科總이 國際協力の 中樞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國際機構의 加入, 國際會議의 國內誘致, 國外 著名學者의 초빙 등에 관하여 科總이 그 業務를 主導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在外 韓國人科學技術者團體에 대한 지원 및 協調業務를 科總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科總이 國際協力の 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科總이 政府에 대하여 政策建議를 한다.

科總 定款을 보면 科總의 主要 業務중의 하나가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施策의 審議와 建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科總은 산하 學會가 보유한 頭腦를 동원하여 科學技術施策을 연구 검토하고 政府에 建議함으로써 政府自體 또는 有關機關이 그 施策을 수행하게끔 하여야 할 것이다. 科總이 政策開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課題가 많이 있겠으나 本人은 다음의 몇가지를 특히 중요한 政策課題라고 강조하고 싶다.

(가) 技術導入의 自由化, 技術開發의 촉진 등 제반 産業技術政策의 수립에 있어서 事前審議와 事後評價를 철저히 실시하는 方案

(나) 國策研究課題의 수행, 尖端技術의 연구개발, 기초연구의 촉진 등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

(다) 技術革新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國際競爭力을 강화하며 産業構造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라) 科學技術教育을 혁신하여 高級頭腦의 양성과 技能人力의 공급을 차질없이 實現하는 방안

(마) 신속정확한 科學技術情報의 수집 보급과 신빙성있는 科學技術統計의 작성활용을 圖謀하는 方案 등을 들 수 있다.